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적 특성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반응*

Korean Mothers' Beliefs Regarding Toddlers' Temperament, and their Reactions
to What they View as Desirable and Undesirable Behavior *

윤기봉(Ki Bong Yun)¹⁾
박성연(Seong Yeon Park)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Korean mothers' beliefs regarding their toddlers' temperament, including what they believe constitutes desirable and undesirable behavior, and their resulting reactions. Data were collected in the process of interviewing 50 Korean mothers of toddlers (whose average age was 34.1 Months, and of which 54% were boys). Results revealed that mothers considered 'High-Sociality', 'Positive Affect' and 'High-Effortful Control' as desirable temperaments, whereas 'Negative Affect', 'Under-Effortful Control' and 'Low Sociality' were considered to be undesirable temperaments for toddlers. Mothers cited the importance of child 'Sociality' and 'Development', 'Easiness of Parenting' and 'Child Happiness' as the reasons for their beliefs. While, they considered 'Negative Affect', 'Under-Effortful Control' and 'Low Sociality' to be undesirable temperaments, citing 'Sociality', 'Difficulty of Parenting', 'Development' and 'Child Safety' as the reasons. Finally, mothers were more likely to give verbal encouragement or physical encouragement such as hugging, in responding to desirable behavior on the part of their child, whereas they were more likely to give firm inhibition, reasoning or inconsistent reaction to their child's undesirable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명예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i Bong Yun, Dept. of Child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minashoho39@naver.com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behavior. Many of the mothers' beliefs varied depending on the child's gender. Result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cultural perspectives.

Key Words : 기질(temperament), 신념(belief), 걸음마기 영아(toddler), 기질에 대한 어머니 반응 (mothers' reactions to temperaments).

I. 서 론

많은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간의 관계가 입증되었고, 어머니들도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늘 아동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서 나타내는 행동의 차이를 예측해주는 변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양육신념, 양육지식,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신념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신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에 이르러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부모의 교육관이나 자녀관에 대한 연구나(Song & Ok, 2010; Kim, 2007),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사회화 신념에 관한 연구(Kim, 2005; Cheah, & Park, 2006; Park, & Cheah, 2005)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Park & Cheah (2005)와 Cheah & Park(2006)의 연구는 사회적 행동특성에 초점을 두어 어머니가 기대하는 사회적 기술이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행동덕목 또는 자녀가치관에 관심을 둔 다른 신념연구들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들

이 부모가 그러한 신념을 가지는 이유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아동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연구는 없어, 어머니의 신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갖기에는 한계가 되고 있다.

한편 어릴 때부터 행동적으로, 정서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향인 기질적 특성은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Thomas & Chess(1977)의 초기 연구부터 시작되어, 많은 연구자들은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동은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 피드백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밝혀왔다(Calkins, Hungerford, & Dedmon, 2004; Kang, & Lee, 2011; Morris, Silk, Steinberg, Sessa, Avenevoli, & Essex, 2002; Van Aken, Junger, Verhoeven, Van Aken, & Dekovic, 2007). 그러나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워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들도 함께 밝혀졌다. 불안이나 두려움을 포함한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영아는 오히려 부모의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양육행동을 이끌어내고(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 & Chen, 1997), 활동성이 높은 영유아는 어머니로 하여금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게 하여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며(Kim, & Roh, 2011), 까다로운 영아의 울

음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더 반응적이고 보호적인 행동을 한다(Park, & Yoo, 1991). 따라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이라도 그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발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homas & Chess가 제안한 이러한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개념은 자녀의 기질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정도로 측정되기도 하고, 부모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기질과 실제 자녀의 기질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로 측정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바라는 기질적 특성은 어떤 것인지, 어머니가 불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기질적 특성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다. 다만, 자녀에게 기대하는 품행에 관한 덕목들을 살펴보면, 국외연구에서는 Puerto Rican 어머니는 사회화 목표에서 공손함과 같은 적절한 품행을 갖기를 원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European American 어머니는 개인의 능력 개발이나 자신감, 독립심같이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을 갖고 있음을 보고했다(Harwood, Scholerich, & Schulze, 2000). 또한 시카고 대학에서 이루어진 조사(1999)에 의하면, 미국의 부모들이 가장 중시하는 자녀들의 특성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순종과 근면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1999.11.25.일자). 국내에서는 일본, 중국 부모들과 비교해 3세~6세의 자녀가 한국사회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에 따라, 자녀가 미래에 학교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으로 리더십을 중요시하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한국의 문화에 반대급부로 각종 경쟁에 노출되더라도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신념이

나타난다는 Lee, Jung, & Kim(2008)의 연구가 있다.

자녀의 기질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에 대한 연구는 소수 이루어졌는데(Bae, & Jo, 2004; Chun, 1998), 이러한 연구도 유아 기질과 어머니 기질 요구도의 상관만을 살펴보거나(Bae, & Jo, 2004),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요구도의 안정성을 본 연구(Chun, 1998)만 있어 영아의 기질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구체적인 신념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동의 기질과 양육 행동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이나(Park, Jun, & Han, 1996; Plomin & Daniels, 1984),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비일관적인 것은 아동의 기질과 양육 행동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영향이 미쳤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에 관한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행동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어머니의 신념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념으로도 측정된다(Rubin, Mills, & Rose-Krasnor, 1989).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긍정적 표현을 하였을 때, 한국의 어머니는 주로 긍정적 표현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반응을 보여 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Park, 2011). 즉, 어머니는 아동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격려하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이나 집단 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하여 개인적인 정서표현을 자제하도록 하거나 통제하는 양육신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문제 중심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들(Han, & Sun, 2004; Chung, Lim, & Kim, 2011)이 많다. 그러나 처벌적 반응과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반응 또한 나타나며, 스트레스적 반응이나 최소화 반응을 가장 덜 보였다(Park, 2011).

한편, 바람직한 자녀의 기질이나 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행동에 관한 신념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Park과 Cheah(2005)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신념 연구는 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보다 나누어 가지는 행동이나 돕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는 한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남아의 경우는 발달적 이유를, 여아의 경우는 도덕적 이유를 들고 있어 어머니가 바람직한 행동특성에 대한 신념이나 그 이유에 대해 유아의 성에 따라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처벌적 반응에 관해서는 연구결과가 불일치한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체적 활동력과 행동반경이 크기 때문에 행동을 통제할 방법으로 처벌적 반응을 많이 보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남아일수록 처벌적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 Chung, Lim, & Kim(2011)의 연구와 실제로 아동의 성에 따라 정서적 특성에 차이가 없음에도 남아 어머니가 더 많은 처벌적 반응을 보인 Kwon, & Lee(2005)의 연구도 있으나, 남아와 여아에게 하는 처벌적 반응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Sung, Choi, & Lee(2007)도 있다. 이렇듯,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비일관적이며, 특히 기질자체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나 반응행동에서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기질 특성은 무엇인지,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을 어머니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질 특성에 대해 어떠한 반응행동을 보이는지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걸음마기는 자율성과 자아개념, 일상생활에서의 자조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시기로, 개인적인 특성으로서의 기질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외부, 즉 부모의 조절을 통해 자아통제력의 기초가 놓여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부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기질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반응 행동에 대한 탐색은 걸음마기 영아의 행동발달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교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바람직한 기질,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다르고, 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질에 대한 우리나라 어머니의 신념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의 정서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걸음마기 영아의 어머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질특성은 무엇인가? 또한 걸음마기 영아의 어머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질특성은 무엇인가? 이는 영아의 성에 따라 다른가?

둘째, 걸음마기 영아의 어머니가 그 기질특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걸음마기 영아의 어머니가 그 기질특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영아의 성에 따라 다른가?

셋째, 영아가 바람직한 기질특성을 보일 때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한가? 또한 영아가 바람

직하지 않은 기질특성을 보일 때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는 영아의 성에 따라 다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어머니 50명이다. 걸음마기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27(54%)명, 여아가 23(46%)명이었으며, 영아의 평균 월령은 25개월이었다. 어머니의 연령 분포는 28~43세로 평균연령은 34.10세였다(Table 1 참고).

2. 연구도구

어머니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설문지와 같은 평정척도를

이용한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현상학적 입장을 취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즉, 자녀의 기질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관련한 초기연구이기 때문에, 현상에 관한 수치를 강조하는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를 함으로써 좀 더 조사대상의 일차적인 의미 파악에 초점을 둘 수 있고, 그 내용을 역동적으로 조사해 나갈 수 있다는 Creswell(2009)의 제안에 따랐다.

이에 어머니들 각각의 개별적이고 사례에 기초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Garstein, 2011)로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총 7개의 개방형(open-ended)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머니의 주관적인 지각에 관하여 신뢰롭고 다양한 신념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의 어머니의 응답은 면접자의 직접 기록과 함께 녹음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participant variable (N = 50)

Variable	N (%)	Variable	N (%)
<u>Gender of children</u>		<u>Education of mother</u>	
Boys	27 (54%)	High school	1 (2%)
Girls	23 (46%)	College	11 (22%)
		University	24 (48%)
		Graduate school	13 (26%)
<u>Age of children</u>		<u>Age of mother</u>	
18~23month	21 (42%)	28~30yrs.	5 (10%)
24~29month	17 (34%)	31~35yrs	29 (58%)
30~36month	12 (24%)	36~39yrs	14 (28%)
		over 40yrs	2 (4%)
<u>Birth order of child</u>		<u>Occupation of mother</u>	
Firstborn	6 (12%)	House keeper	34 (68%)
Second eldest	12 (24%)	Working	16 (34%)
Third child	3 (6%)		
Only child	29 (58%)		

우선 어머니에게 자녀의 기질적 특성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였다. 질문에 어머니들이 대답하기 어려워하면 응답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부가설명(probing)을 하였다. 그 후, 바람직한 기질특성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을 인터뷰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질문을 차례로 하였다. 첫째, “이러한 특성들(어머니가 사용한 기질 내용이나 표현들을 사용함) 중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특성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둘째, “어머니께서 이러한 특성들(어머니가 사용한 기질 내용이나 표현들을 사용함)을 다른 특성들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셋째, “아이가 이러한 특성(어머니가 사용한 기질 내용이나 표현들을 사용함)이 나타내는 행동을 할 때, 어머니께서는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질특성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을 인터뷰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질문을 차례로 하였다. 첫째, “이제, 반대로 아이의 특성들(어머니가 사용한 기질 내용이나 표현들을 사용함) 중에서 어머니께서 아이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 걱정을 하십니까?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어머니가 일상적인 일을 잘 해내기가 힘들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 때도 어머니가 응답을 어려워하는 경우,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가 성질을 부리거나 잠자는 습관 때문에, 또는 순종하지 않아서 아이를 다루기 힘들다고 합니다. 때때로 어머니를 짜증나고 화나게 만드는 아이의 행동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라고 부가 설명을 하였다. 둘째, “이러한 특성들(어머니가 사용한 기질요소, 정의를 사용함)은 어떤 면에서(어떤 식으로) 어머니를 힘들게 합니까? 왜 그러한 행동들을 다루기가 힘들니

까?”라고 질문하였다. 셋째, “아이가 이러한 특성(어머니가 사용한 기질요소, 정의를 사용함)이 나타내는 행동을 할 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절차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인터뷰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5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에서 연구 대상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부가설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마련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는 주로 인터넷 카페나 어머니들 모임 등에서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어머니와 전화 연락으로 연구를 진행할 날짜 약속을 잡고, 연구자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였다. 가정 방문 시, 우선 어머니에게 자신이나 가족 등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후에, 신념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라포 형성을 포함한 인터뷰는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녹취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Strauss 와 Carbin (1990)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법을 사용하였다. 즉,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메모 내용까지 함께 자료 통합을 한 후에 3단계에 걸친 코딩을 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녹취한 뒤, 줄 단위로 분석을 하여 의미단어를 찾아내었고, 2단계에서는 유사한 의미단어들을 묶어서 각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모든 항목들을 분류하

여 유목화하고 이를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기질 및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에 관한 신념 및 그 이유, 반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응답 내용들을 분류하여 주요항목 및 주제별로 구분하였으며, 이 때 다중응답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영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응답 내용들이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SPSS/PC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 자료의 분류 및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1인의 검증을 거쳤으며, 연구 대상자의 약 15%인 8명에 대한 연구자의 코딩자료와 아동발달 전문가 1인의 코딩 자료간의 관찰자간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90~95%의 일치도를 보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에서는 각 질문에 대해 걸음마기 남아 27명과 여아 23명의 어머니 50명이 응답한 내용들을 다중응답으로 코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1.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질 및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질

어머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질특성을 살펴보면, 걸음마기 영아의 착하고 순함(15.8%), 사회성(13.2%), 밝음(10.5%)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끈기와 집중력을 보이는 특성(9.2%), 주도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특성(9.2%)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행동,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행동, 활발하고 외향적인 행동,

잘 웃는 특성, 애교가 많은 특성,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도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아의 어머니의 경우, 사회성(16.7%)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순함(14.3%)과 집중력(14.3%)이었으며, 주도성(11.9%)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여아의 어머니의 경우, 순함(17.6%)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밝음(11.8%)과 양보나 배려하는 특성(11.8%)으로 나타나서 남아의 어머니가 바람직하다고 믿는 특성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람을 좋아하고, 인사도 잘해서 차가 지나가도 (그 차를 향해 바이바이 손을 흔들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경비 아저씨한테도 인사 잘하고 (그런 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23개월 남아의 어머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그에 맞춰서 행동) 조절을 잘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싫어하면 (어머니가 싫어하는 행동을) 좀 안하고. 제가 힘들다 그러면 와서 힘들어? 뽀뽀해줄까? (라고 말해요)”
(35개월 여아의 어머니)

위의 바람직한 기질특성으로 나타난 특성들을 Putnam, Gartstein 과 Rothbart (2006)의 3가지 기질 요소를 참고로 유목화한 결과, 걸음마기 영아의 바람직한 기질적 특성은 높은 사회성(52.7%), 긍정적 정서(34.2%), 높은 조절력(13.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높은 사회성(High-Sociality)에는 사회성 및 외향성 항목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술로서의 양보, 애교, 인사성, 공감능력, 표현력 및 주도성 항목들이, 긍정적인 정서(Positive affect)는 긍정성, 밝음, 잘 웃음, 순함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높은 주의통제력(High-Effortful Control)에는 집중력과 조절력이 포함되었다. 한편, 성에 따라서는 크게 다른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2> Toddlers' desirable temperament characters

Desirable temperament characters	Boys (n=27)		Girls (n=23)		Total (n=50)	
	<i>f</i>	%	<i>f</i>	%	<i>f</i>	%
High-sociality	22	52.5	18	52.9	40	52.7
Positive affect	14	33.3	12	35.2	26	34.2
High-effortful control	6	14.3	4	11.7	10	13.1
Total	42	100	34	100	76	100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특성에 대해 어머니가 갖는 신념내용들을 살펴보면, 떼쓰거나 고집부리기(33.3%), 밥 잘 안 먹고 잠 잘 안 자기(13.9%) 및 행동 조절이 잘 안 되는 특성(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의 경우, 떼쓰기에 이어 조절력 부족(15.9%)을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로 본 반면, 여아의 경우 떼쓰기에 이어 음식, 수면에 대한 까다로움을 보이는 생리적 불규칙성(14.3%)이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로 나타났다.

“아이가 자기만 봐달라고 하면 힘들어요. 엄마 몸은 하나인데 큰 애랑 (이 아이랑) 욕구가 달라서 (아이 둘이) 부딪히면, 제가 누군가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어느 한 아이의 욕구만 다 들어줄 수 없으니) 제가 (두 아이의 욕구들을) 조절하기 힘들어요.”

(25개월 여아의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집중력이 없어서 공부를 해도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했

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건(저를 닮아 공부를 하는데도 집중을 잘하지 못해 고생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죠.”

(21개월 여아의 어머니)

한편,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특성으로 나타난 특성들도 Putnam, Gartstein 과 Rothbart (2006)의 3가지 기질 요소를 참고로 유목화한 결과, Table 3에서 보듯이 부정적 정서(58.6%), 낮은 주의통제력(25%), 낮은 사회성(19.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에는 떼쓰기, 식사 및 수면의 까다로움, 형제자매 질투, 말을 잘 안 들음 특성이, 낮은 주의통제력(Under-Effortful Control)에는 행동조절 부족, 과격함, 산만함, 급함, 겁없음 특성이 포함되었다. 낮은 사회성(Low Sociality)에는 낮가림, 소심함, 예민함, 겁 많음 특성이 포함되었다. 특히 여아를 둔 어머니의 경우(67.9%)가 ‘부정적 정서’를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 특성으로 생각하는 반면(cf, 남아의 어머니는 37.7%), 남아를 둔 어머니의

<Table 3> Toddlers' undesirable temperament characters

Undesirable temperament characters	Boys (n=27)		Girls (n=23)		Total (n=50)	
	<i>f</i>	%	<i>f</i>	%	<i>f</i>	%
Negative affect	21	37.7	19	67.9	40	58.6
Under-effortful control	13	29.5	5	17.9	18	25.0
Low sociality	10	22.7	4	14.3	14	19.5
Total	44	100	28	100	72	100

경우(29.5%)는 부족한 정서조절력을 더 (cf, 여아의 어머니는 17.9%)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2. 바람직한 기질 및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에 대한 이유

먼저, 바람직한 기질로 생각하는 기질 특성에 대해, 그 기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29.5%), 커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15.9%), 어머니가 키우기 쉽기 때문에(13.6%)의 이유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였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걸음마기 영아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남아의 경우 영아가 앞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20.0%)라는 이유가 많았으며,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21.1%)라는 이유들이 나타났다.

“무인도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어울려서 상호작용 하면서 사는 거고, (사회 내에서

살아갈 것이기에) 외톨이로 살 거 아닌 이상, (앞으로 커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했으면 좋겠어요.”

(28개월 남아의 어머니)

“(우리 아이는) 슬프거나 기쁘거나 모든 감정을 제대로 다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략) 그것(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특성)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5개월 남아의 어머니)

또한, Park & Cheah (2005)의 신념연구에서 나타난 이유들을 참고하여 특정한 기질특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분류한 결과, Table 4에서 보듯이, 사회적 이유(54.5%), 발달적 이유(22.7%), 양육의 용이성(Easy Parenting) (13.6%)이라는 이유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영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이유(Child Happiness) (9.1%)도 나타났다. 사회성(Sociality)로는 사회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비롯하여,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관한 이유들이 포함되었고, 발달적 이유(Developmental reason)로 주도적으로 살아야

<Table 4> Reasons why Korea's mothers provided for the importance of each toddlers' desirable temperament character

Reason	Boys (n=27)		Girls (n=23)		Total (n=50)	
	f	%	f	%	f	%
Sociality	27	54.0	21	55.2	48	54.5
Development	14	28.0	6	15.7	20	22.7
Easiness of parenting	4	8.0	8	21.1	12	13.6
Child happiness	5	10.0	3	7.9	8	9.1
Total	50	100	38	100	88	100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비롯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 및 적응을 잘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남아의 어머니는 28%가 발달적 이유를 강조하는 반면(cf, 여아의 어머니는 15.7%), 여아의 경우 21.1%가 양육의 용이성을 그 이유(cf, 남아의 어머니는 8%)를 들었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로 생각하는 기질 특성에 대해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어머니가 키우기가 힘들어서라는 ‘양육의 어려움’이 30.5%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또래나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20.3%),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16.9%),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여서(13.1%), 영아가 배워야하는 규칙을 제대로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13.1%)라는 이유들도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분류해보면, 여아(39.1%)는 남아(25.0%)에 비해 양육하기 힘든 이유가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남자는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22.2%)이라는 이유나 아이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19.4%)이라는 이유가 여아(각각 17.4%, 13.1%)보다 높았다.

“애가 그러면 일단 제가 힘들잖아요.”
(23개월 남아의 어머니)

“길바닥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폐를 쓰면서) 뒤로 몸을 짓히고 그러면 다칠까 봐 그러죠.”

(34개월 여아의 어머니)

“이게(고집부리는 게) 지속되면, 친구들과의 관계, 좀 더 나아가면 나중에 사회생활, 조직 안에서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고집해 나가게 돼서, 귀를 열어놓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거고.....(중략)”

(18개월 남아의 어머니)

위의 이유들 또한 Park & Cheah (2005)이 개념화한 사회화 신념의 ‘이유’ 기준을 참고하여 유목화한 결과, 사회적 이유(Sociality)(35.6%), 양육의 어려움 때문(Difficulty of Parenting)(30.5%), 발달적 이유(Development)(17%)로 나타났다(Table 5 참고). 이외에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Child Safety)(16.9%)이라는 이유도 나타났다. 여기서 사회적 이유는 비사회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이목이 신경쓰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의 이유들이 포함되며, 발달적 이유는 규칙을 습득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영아가 추후에 비주도적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의 이유가 포함되었다. 특히, 여아의 경우는 양육의 이유

<Table 5> Reasons why Korea's mothers provided for the importance of each toddlers' undesirable temperament character

Reason	Boys (n=27)		Girls (n=23)		Total (n=50)	
	f	%	f	%	f	%
Sociality	13	36.1	8	34.7	27	35.6
Difficulty of parenting	9	25.0	9	39.1	18	30.5
Development	7	19.4	3	13.1	10	17.0
Child safety	7	19.4	3	13.1	10	16.9
Total	36	100	23	100	59	100

(39.1%)가 사회적인 이유(34.7%)보다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는 발달적 이유나 안전의 이유가 여아의 경우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3. 바람직한 기질특성 및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먼저, 어머니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기질특성을 보였을 때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면, 언어적인 칭찬(52.4%)과 안아주기 및 뽀뽀해주기 등의 스킨십(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그냥 두는 편이에요. (중략) 자기 밥그릇 자기가 찾아먹는 아이니까 내가 가서 뭘 개입하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친구들과) 잘 놀 때는 그냥 건드리지 않아요. 왜 건드려요~ 잘 놀 때 안 건드리는 게 애기 아빠랑 불문율이예요.”

(35개월 여아의 어머니)

또한, 아이의 바람직한 기질특성에 대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머니의 반응들을 정서사회화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을 참고(Park, 2011; Ladouceur, Reid, & Jacques, 2002)로 하여 유목화한 결과, 언어적인 격려(61.6%)와 신체적인 격려(21.6%), 직접적인 반응을 해주지

않는 무반응(15.4%), 물질적 보상(1.5%)의 4가지로 분류되었다(Table 6 참고). 언어적인 격려(Verbal Encouragement)에는 언어적으로 칭찬해주는 반응과 아이의 감정을 언어적으로 읽어주는 반응을 포함하며, 신체적인 격려(Physical Encouragement)에는 안아주거나 뽀뽀해주는 스킨십을 비롯하여,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보이는 반응을 그대로 따라해주어 아이를 격려해주는 반응도 포함되었다. 무반응(No-Reaction)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그냥 두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이의 바람직한 기질특성에 어머니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저 지켜보고 흐뭇하게 웃는 반응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보상(Material Rewards)의 반응에서 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영아가 평소에 원하던 사물을 제공해주었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질특성을 보일 때,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기(17.2%), 이유 설명하기(11.5%)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요. (지금은 저렇게 낮을 가려도) 유치원 다니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그 때가 아니어도) 저처럼 직장생활 하면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지금 강제로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22개월 남아의 어머니)

<Table 6> Mother's reaction when toddler showed desirable temperament character

Reaction	Boys (n=27)		Girls (n=23)		Total (n=50)	
	f	%	f	%	f	%
Verbal encouragement	18	58.0	22	64.6	40	61.6
Physical encouragement	7	22.6	7	20.5	14	21.6
No-reaction	5	16.1	5	14.7	10	15.4
Material rewards	1	3.2	0	0	1	1.5
Total	31	100	34	100	65	100

“바깥에서 떼 쓰면 마트에 (혹은 그)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먼저 보게 되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아이가 금방 멈추게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혼내거나 세게 움찔하게 때리거나 (해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받지 않게 해요). 집에서 생각하는 자리가 있어서, (아이가) 거기 갔다 오면 줌 나아요. 그래도 계속 떼쓰면 거기 가라고 소리 질러서 보내요.”

(35개월 여아의 어머니)

이 같은 어머니의 반응들을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2002)의 CCNES 및 Ladouceur, Reid와 Jacques(2002)가 개발한 PRCPS를 참고로 하여 유목화한 결과, 단호하게 자제시키기(19.5%), 비일관적 반응(18.3%), 설명을 통해 자제시키기(17.2%), 문제 중심 반응(14.9%), 최소화 반응(13.7%), 스트레스적 반응(11.4%)으로 유목화되었다. 단호하게 자제시키기(Firm Inhibition)에는 단호하게 말하기, 생각하는 의자를 사용하는 반응이, 설명을 통해 자제시키기(Reasoning)에는 이유를 설명하기, 해별방법 알려주기의 반응이, 문제중심반응(Problem-Solving Reaction)에는 바로 어머니가 해결해주기, 환경을 변경시키기, 대체물을 제시하기의 반응이 포함되었다. 최소화 반응(Minimization Reaction)은

걸음마기 영아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특성을 보일 때 어머니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취급하여 직접적인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아이가 직접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반응과 아이의 행동을 보고도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않는 반응 및 처음부터 아예 아이의 행동을 무시해버리는 반응이 포함되며, 스트레스 반응(Distress Reaction)에는 화, 짜증내기 및 소리지르기 반응이 포함된다. 비일관적 반응(Inconsistent Reaction)에는 상황마다 다른 반응을 하거나, 아이를 달래주다가 무시하거나 수용해주는 반응을 포함한다. 성차를 살펴보면, 단호하게 자제시키기(여아 14.3% vs 남아 24.4%) 및 설명을 통해 자제시키기(여아 11.9% vs 남아 22.2%)는 남아에게 더 많이 보였으나, 최소화반응은 여아(19%)의 어머니가 남아(8.9%)보다 더 많이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걸음마기 영아를 둔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 또한

<Table 7> Mother's reaction when toddler showed undesirable temperament character

Reaction	Boys (n=27)		Girls (n=23)		Total (n=50)	
	f	%	f	%	f	%
Firm inhibition	11	24.4	6	14.3	17	19.5
Reasoning	10	22.2	5	11.9	15	17.2
Problem-solving reaction	7	15.5	6	14.3	13	14.9
Minimization reaction	4	8.9	8	19.0	12	13.7
Distress reaction	4	8.9	6	14.3	10	11.4
Punitive reaction	1	2.2	3	7.1	4	4.6
Inconsistent reaction	8	17.8	8	19.1	16	18.3
Total	45	100	42	100	87	100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기질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총 50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특성으로 높은 사회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긍정적 정서, 높은 주의통제력이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특성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주의통제력, 낮은 사회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질특성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질특성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다. 먼저, 여아의 어머니가 좀 더 ‘부정적 정서’를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 특성으로 생각했다. 많은 연구들에서 여아와 남아가 나타내는 부정적 정서성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Lee, 2011; Park, & Park, 2010; Nam, 2003), 우리나라 어머니는 전통적으로 여아가 조용하고 순종적인 성향을 가지길 기대하기 때문에 여아가 부정적 정서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아를 둔 어머니는 부족한 정서조절력을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유아기 여아가 주의통제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Eiden, Edwards, & Leonard, 2004; Lee, 2011; Putnam, Garstein, & Rothbart, 2006)로 보아, 평소에 남아가 정서조절력이 부족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어 어머니가 남아 양육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남아의 낮은 조절력이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어머니들이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 중에

서 그 특성이 가장 바람직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통해 볼 때, 어머니들이 걸음마기 영아가 어떻게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즉, 어머니들이 바람직한 특성으로 꼽은 이유들을 보면, 어머니들이 어떤 특성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걸음마기 영아의 어머니들이 가장 바람직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남녀 모두 사회성을 가장 많이 들고 있어, 한국의 어머니들은 걸음마기 자녀가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는 생활을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걸음마기 자녀의 바람직한 특성으로 사회성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한 기질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적 이유, 발달적 이유, 양육하기 쉽다는 이유, 영아의 행복을 위한 이유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정서성, 낮은 주의통제력, 낮은 사회성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이유, 양육의 어려움 때문, 발달적 이유, 영아의 안전을 위한 이유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 행복, 안전 등을 중요하게 여길뿐만 아니라, 영아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어머니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더 손쉽게 영아를 키울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아보다는 남아의 어머니들이 가장 바람직한 특성 및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꼽는 중요한 이유로 발달적 이유를 들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들이 남아의 나뉘쓰기, 돕기 및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기와 같은 사회적 기술이 중요한 것은 발달적인 이유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Park & Cheah, 2005)을 지지한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꼽는 중

요한 이유로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안전의 이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수준이 높기 때문에(Almli, Ball, & Wheeler, 2001; Putnam, Gartstein, & Rothbart, 2006), 어머니들은 남아가 다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아의 어머니들은 남아의 어머니들보다 양육하기가 쉬운 기질 특성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양육하기 어려운 기질 특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은 여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좀 더 쉽게 돌볼 수 있는 쉬운 기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한국의 어머니들이 남아보다 여아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공손함, 순종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질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된 이유에서 현대 한국사회 어머니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서구문화의 영향 속에 갈등을 겪으면서(Cheah & Park, 2006) 자녀의 성별에 따른 전통적인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걸음마기 영아가 바람직한 기질 특성을 보이면 어머니들은 남아, 여아 모두에게 칭찬을 해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언어적인 격려를 가장 많이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들은 안아주거나 뽀뽀해주는 스킨십을 하거나 혹은 영아의 반응을 어머니가 그대로 따라 해주며 영아를 격려해주는 신체적인 격려를 많이 해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긍정적 표현을 덜 허용한다는 Park(2011)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는데, 이는 사회적 상황이 많은 학령기 대상의 Park(2011)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이 걸음마기 영아로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 내용이나 보육 및 케어로서의 양육 영역

이 넓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반면, 긍정적인 기질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는 성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아동의 긍정적 정서나 행동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Park, 2011; Kim, 2005)과 일치한다.

한편, 영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질특성을 보일 때, 어머니는 보다 다양하게 단호하게 자제시키기, 설명을 통해 자제시키기, 문제해결 해주기, 최소화 반응,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을 보이는 한편, 비밀관적인 반응도 꽤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는 문제중심 반응을, 그 다음으로 처벌적 반응을 보인다고 한 Park(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어머니가 지지적으로 반응하는 경향(문제해결반응)을 보인다는 연구들(Han, & Sun, 2004; Chung, Lim, & Kim, 2011)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우리나라의 젊은 어머니들은 개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와 같이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문제 중심적 해결을 하여 도와주려는 반응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들은 남아에게는 단호하게 자제시키고 이유를 설명하는 지지적인 reasoning의 훈육 방법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처벌적인 반응을 포함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Chung, Lim, & Kim, 2011; Kwon, & Lee, 2005)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며,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Sung, Choi, & Lee(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에 기인할 수 있다. 즉, 이들 연구에서는 만 3~6세의 유아기 대상이나 본 연구는 걸

음마기 영아로 하였다. 따라서 이시기의 아동에게는 사실상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딸에게 보다 더 단호하고 설명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질문지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달리 인터뷰 방법으로 수집한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오염일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재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연구문제 1, 2, 3들을 통틀어 볼 때, 한국의 어머니들은 걸음마기 영아가 사회적인 어울림과 관련된 특성들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영아 때부터 지역 내 문화센터나 프로그램들을 통해 또래친구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최근 국내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녀가 갖는 또래친구와의 관계에도 관심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걸음마기 자녀가 또래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또래에게 자녀의 행동이 수용이 되는지 혹은 또래의 행동으로 자녀가 나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며 자녀가 속한 집단 내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들(Kim, 2005; Kim, & Park, 2002; Cheah, & Park, 2006; Park, & Cheah, 2005)을 뒷받침한다.

한편, 현재 걸음마기의 자녀를 둔 한국의 30대의 어머니들은 서구화된 문화에 노출되어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이지만, 여전히 집단주의적 가치가 내재화되어 있는 세대이다(Schwarz, Schafermeier, & Trommsdorff, 2005). 따라서 한국의 사회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지만, 한국 가족은 양육의 관습과 신념에 대해 유

교 이념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 가치를 보인다(Kim & Park, 1997; Park & Cheah, 2005). 즉, 아직 한국의 어머니들에게는 아시아 문화의 특징인 유교 이념에 따라, 집단의 조화와 응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질 특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혼자서 뛰어나게 실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영아가 속할 사회나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걸음마기 영아가 또래와의 관계나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특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신념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부모의 이러한 신념이 개인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표집대상, 측정도구 및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의 걸음마기 영아를 둔 5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양육신념이 부모의 사회 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Schaefer, & Edgerton, 1985; Kim, & Park, 2002)에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어머니들의 기질에 대한 신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에는 걸음마기 영아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유아를 둔 어머니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연구대상으로 이런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신념, 특히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에 관한 신념에 대해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영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나,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의 기질간의 전후관계, 어머니의 신념과 영아의 행동에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발달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도 점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머니가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에 대해 갖는 신념이 실제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인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을 주로 인터넷 카페 및 어머니들 모임을 통해 표집하였으므로, 대상자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수집에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성격특성을 가진 어머니들일 가능성이 커서 연구대상의 대표성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기질 연구로서 신념을 연구함으로써 어머니가 생각하는 신념, 가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인 신념에 시사점을 마련하였다. 즉,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양육행동 및 영아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관련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영아의 바람직한 기질과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그동안 몇몇 양육신념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어왔던 질문지 방식 대신,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 다양하고 개방된 대답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대답을 토대로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영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이해하는 한편, 우리나라 아동의 정서사회 행동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References

- Almli, C. R., Ball, R. H., & Wheeler, M. E. (2001). Human fetal and neonatal movement patterns : Gender differences and fetal-to-neonatal continuity. *Developmental Psychobiology*, 38(4), 252 - 273.
- Bae, K. S., & Jo, H. S.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child disposition, parents' disposition requirements, and self-esteem of child.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3(2), 137-152.
- Calkins, S. D., Hungerford, A., & Dedmon, S. E. (2004). Mothers' interaction with temperamentally frustrated infant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5(3). 219-239.
- Cheah, C. S., & Park, S. Y. (2006). South Korean mothers' beliefs regarding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1), 61-75.
- Creswell, J., W.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3rd ed.) Thousand Oaks, Ca : Sage.

- Chun, H. Y., (1997). Qualitative research on Korean children's difficult temperament as perceived by their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8(2), 191-211.
- Chun, H. Y., (1998). Longitudin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al need to their children and mother's temperament. *Child studies*, 7(-), 13-28.
- Chung, M. J., Lim, Y. K., & Kim, D. R. (2011). Study of parental reactions to a child's negative emotion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6), 1109-1119.
- Eiden, R. D., Edwards, E. P., & Leonard, K. E. (2004). Predictors of effortful control among children of alcoholic and nonalcoholic fath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5, 309 - 319.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285-310.
- Garstein, M. A. (2011). Toddlers and their "Developmental Niche" : Exploring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n's temperament. Unpublished manuscript.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Han. Y. M., & Sun. K. H. (2004). A Study on the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Journal of th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42(1). 197-206.
- Harwood, R. L., Scholerich, A., & Schulze, P. A. (2000).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in cultural belief systems*. In S, Harkness, C. Raeff, and C, M. Super (Eds.).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87.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child; Understanding variability within and across context. San Francisco; Jossey- Bass.
- Kang, J. H., & Lee, K. N. (2011). Effects of children's individual variables and maternal parenting on children's playfulnes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2), 159-180.
- Kim, J. H. (2007). Analysis of parents' beliefs about young children's readiness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4(7), 587-603.
- Kim, J., & Park, S. Y.(1997). *Children's social behaviors in relation to the maternal traditional values and child-rearing practices*. Poster presented at SRCD April, Washington DC.
- Kim, M. J., & Roh. H. S (2011). The relations among the children'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therapeutic allianc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4(3), 67-86.
- Kim, Y. B. (2005). Fathers' and mothers'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osocial behaviors of boys and girl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145-160.
- Kim, E. J., & Park, S, Y. (2002). Father's socialization beliefs as related to child soci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3), 187-203.
- Kwon, Y. H., & Lee, J. H. (2005).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hips to children's social behaviors

- and emotional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201-216.
- Ladouceur, C., Reid, L., & Jacques, A. (2002).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rents' reaction to children's positive emotions scal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1), 8-18.
- Lee, K. S., Jung, M. R., & Kim, H. J. (2008). A comparative analysis of parenting styles in Korea, Japan and China.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8(3), 151-172.
- Lee, J. H. (2011). The relations among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aggression depending on sex.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3), 225-241.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Sessa, F. M., Avenevoli, S., & Essex, M. J. (2002). Temperamental vulnerability and negative parenting as interacting predic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461-471.
- Nam, H. S. (2003). A difference of parenting stress dependent on children's temperament perceived by their moth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2(2), 121-135.
- Park, J. S., & Park, E. H. (2010). The influence of children's individual variables, family variables, family resilience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 203-225.
- Park, S. Y. (2011). Korean mothers' naive theories regarding emotion development of their child. Unpublished manuscript.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S. Y., & Cheah, C. S. (2005).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s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24-34.
- Park, S. Y., & Yoo, M. H. (1991). Maternal perception and reactions to infant's crying as a function of easy - difficult infant tempera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2(2), 173-191.
- Park, S. Y., & Jun, C. A., Han, S. Y. (1996). Research : Mother's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4), 203-215.
- Plomin, R., & Daniels, D. (1984). The interaction between temperament and environment :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Merrill Palmer Quarterly*, 30, 149-162.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3), 386-401.
- Rubin, K. H., Mills, R. S. L., & Rose-Krasnor, L. (1989). Maternal belief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B.Schneider, C. AILili, J. Nadel-Brulfert, & R. Weissverg (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pp. 313-331)*. Holland; Kluwer Academic.
- Rubin, K. H., Hastings, P., Stewart, S., Henderson, H. A., & Chen, X. (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 Development*, 68, 467-483.
- Schaefer, E. S. & Edgerton, M. (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287-318).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Schwarz, B., Schafermeier, E., & Trommsdorff, G.(2005). Relations between value orientation, Child-rearing goals, and Parenting : a comparison of German and south Korean mothers. In W. Friedmeier, P. Chakkarath, P., & Schwarz(Eds.), *Culture and human development : The important of cross-cultural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 NY : Psychology Press.
- Song, M. S., & Ok, S. W. (2010). Parental beliefs and involvement in preschool children's academic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6), 361-384.
- Strauss, A., & Ca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 *N. Y. : SAGE Publications*.
- Sung, M. Y., Choi, I. S., & Lee, K. Y. (2007). Parents' emotional reactions to preschoolers' negative emotions, emotional knowledge, and emotional reaction : A comparison between low-income and middle-income preschool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8), 61-75.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Mazel*.
- Van Aken, C., Junger, M., Verhoeven, M., van Aken, M. A., & Dekovic, M. (2007). The interactive effects of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on toddlers' externalizing behavio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5), 553-572.

2012년 10월 31일 투고, 2013년 1월 28일 수정
2013년 2월 6일 채택